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련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추석(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안내

- 10월 1일(목)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돌아가신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은인들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예물 봉헌하실 분들은 9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신청접수바랍니다.
- 마감까지 접수하지 못한 교우분들은 추석 당일에 성전 내 비치 된 【합동위령미사 예물함】에 직접 봉헌하시면 됩니다.

+ 추석 연휴 미사 일정

일시	미사 시간
9월 30일(수)	06시, 10시, 19시
10월 1일(목) 추 석	06시, 11시, 19시 ※ 매 미사 30분 전, 짧은 연도를 바치오니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 매 미사 시 분향 있습니다.
10월 2일(금)	06시, 10시, 19시
10월 3일(토)	06시, 19시 ※ 15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10월 4일 (주일)	06시, 09시, 11시(교중), 15시, 17시, 19시 ※ 15시 미사는 초등부, 중·고등부 합동 미사입니다.

◎ 새 예비신자 접수 안내 (2021년 3월 세례 예정)

- 입교식: 10월 18일(주일)  
※ 입교식 이후에는 교리 수업 진행을 위해 예비신자 접수는 받지않습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2021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광고료: 60만원)

- 본당의 모든신자들에게 배포 되는 2021년도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사랑의 동전 모으기 (마감일: 9월 30일)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자 동전 모으기를 실시합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모여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 집에 숨어 있는 동전, 여행 후 남은 외화 모두 기부받습니다.
- 문의: 강 소피아 (010-5243-224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본당 지침 안내

- 성당내 입장 시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신자: 바코드 스캔, 비신자: 출입자 수기 명단 작성) 체온 측정과 손 소독 후 입장 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다음 카카오페이 QR 코드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코드 출력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성당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고, 마스크는 코 밑이나 턱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망사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미사 중에도 마스크는 벗지 않으며, 성체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성전 소독을 위해 **성당 개방 시간은 매 미사 전 30분에 열며, 미사 후에는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 소모임은 물론 교우들끼리의 개인적인 모임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주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안내

- 교무금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를 납부하는 것은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교무금을 아직까지 책정하지 않으신 세대는 본당 사무실에서 책정해 주시고, 매월 납부 부탁드립니다.
- 납부 방법은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 납부 시 교무금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좌번호: 우리은행 181-04-117222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입금자명: 교무금 책정자 이름 + 세례명

또한, 은행송금 및 이체 후에는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통장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9월 20일(오늘): 서울교구내 성지개발을 위한 특별헌금

성가번호 입 당: 287      예물준비: 217, 218      성 체: 157, 158, 159      파 견: 285

화 답 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 - 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38)**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3)\_기도의 조건**

**신앙에 삼덕으로 고무된 기도**

기도에는 왕도가 없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도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충실성’이고 또 하나는 ‘신앙에 삼덕’이다. 지난 지면에서는 기도의 충실성을 이미 다루었고, 이번에는 신앙에 삼덕이 어떻게 기도에 바탕을 이루는지 서술하려고 한다.

**1. 신앙**

“나는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신자가 있다면, 성경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며 밤새워 기도하던 예수님과 함께 해 오신 하느님께 말을 건넬 마음이 없을 수 있는지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신앙행위다. 신앙이 없이 기도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해한다. 대화는 너와 나의 상호 소통이다. 소통이 잘 되려면 서로간의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 믿음이 깊을수록 깊은 속내를 나누게 된다. 하느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분과 신뢰 관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도 상대방에게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부부 관계에 신뢰가 깨지면 진실한 대화가 어렵고 가정은 삭막해진다. 저자는 기도에 지성과 감성 차원이 도움이 되지만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2. 희망**

“기도는 희망의 행위이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분이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저자는 희망을 기도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약함, 상처와 죄도 포함한다.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만의 어둠이 있다고 한다. 나의 비참, 부끄러움과 죄책감, 심리적 나역함, 정서적인 상처, 악에 대한 공범의식, 무기력, 다양한 성질의 실패,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대면하지 못한 채 기도를 포기하고 고독과 침묵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과의 대면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2,17)고 하신다.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와 능력을 무조건 신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느님이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이다.”(87쪽)

**3. 사랑**

“기도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97쪽) 기도는 신뢰 속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지만, 우리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의 활동보다 하느님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바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은총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하느님-이웃-내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기도 안에 일치된다.

2020. 09. 20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09월 09일 ~ 09월 15일)**

동헌 예들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24주일 봉헌금	4,996,300원	총 세대수	2,555세대
예루살렘 성지복구를 위한 2차	2,886,000원	총 납부세대	1,180세대
교무금	15,14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2세대
성소후원금 ( 4건)	100,000원	총 납부율 (%)	46.2%
감사 헌금			
손 카타리나	50,000원	이 라파엘라	200,000원
윤 아네스	50,000원	정재민	800,000원
김 요셉	100,000원	익명	300,000원
		<b>합계:1,500,000원</b>	